

한국 정치학계가 모색하는 '제3의 길'

세기의 전환과 더불어 정치철학의 복권 논의돼...
동서양 넘어서는 '보편적 정치철학'의 가능성 탐구

김석근 | 연세대 정외과 교수

근대 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정치철학의 효용은 이미 다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에서 드러나듯, 세기의 전환과 함께 정치철학은 복권됐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탈사구 중심주의, 사이버 문명 등이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통적 정치사유에 대한 추체험과 함께 새로운 정치철학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철학을 탐구해온 학자들은, 세계사적으로 보면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정치적 경험과 정치적 사유에 대한 탐구로부터 자신의 학문적 이력을 시작하곤 한다.

거기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 (Zoon Politikon), 더 정확하게 말해서 '폴리스(polis) 내에서 살아 가는 존재'로 간주됐으며, 또한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이며, 당연한 존재양식으로 여겼다. 좋은 삶든 일정한 정치적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정치적인 인간과 사유에 대한 탐구로서 정치철학은 ' 으뜸 학문' (Master Science)이라는 자부심을 지녀 왔다.

다소의 일탈과 변주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정치철학 연구는 곧 정치학 그 자체이기도 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치학의 역사는 곧 정치철학의 역사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계속되지 않는다! 시대의 흐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개념, 다시 말해 근본적인 존재양식에 대해 다른 설명이 제기됐다. 여기서, 종래의 '정치적 동물' 내지 '간주관적인(intersubjective) 존재'와는 맥락을 달리하는 절대 고독의 '개인' (individual)과 만나게 된다. 그렇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대' 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사회과학의 철학적 단계의 총칭이자 동시에 사회인식의 모체

이기도 했던 정치학은 경제학, 사회학 같은 새로운 학문분야를 기꺼이 분가시켰다.

그들 신생학문들이 내세운 '경험 과학', 즉 과학적인 방법과 법칙성 탐구 — (자연)과학의 발전에 힘입은 — 가 본가인 정치학에 미친 영향 또한 적지 않았다. 과학적인 정치학, 정치과학 (Political Science)의 성립, 그리고 훗날의 '행태주의 혁명' (Behaviorial Revolution)은 전혀 새로운 정치학을 등장시켰다.

근대성의 병리현상에 대한 반성

이성과 과학을 표방하는 근대 사회의 성립과 더불어, 정치철학의 효용은 이미 다한 것처럼 보였다. 정치철학은 정치학의 한 부분으로 밀려나, 짙은 고독과 소외를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전공하는 학자들의 푸념과 한탄의 목소리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얼핏 보기에 과학적인 정치학, 정치과학, 행태주의 혁명 같은 것은 정치철학과 대극에 있는 것 같지만, 따져 보면 그렇지 않았다. 그들 역시 정치학의 '근대적' 반응(혹은 적응)과 분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혁명적인(?) 사유의 전환은 정치철학의 축적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정치과학이 깊어갈수록 그에 대한 반성이, 그리고 정치철학에 대한 요구가 더욱 절실

해지고 있다. 세기의 전환과 더불어 정치철학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자연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정치철학의 복권'이라 해도 되겠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성·과학·진보·개인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근대성' (Modernity)은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왔지만, 모든 것이 각본대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찾아온 것은,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심각한 병리 현상이었다. 새로운 사유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고, 그런 경향과 조짐은 이미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을 출발점으로 질서(사회, 국가 등)를 설명했던 방식이 심한 시행착오였음이 지적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표방하는 자유주의(Liberalism)에 대한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의 비판과 논쟁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오래된 명제를 새삼 상기 시켜주고 있다. 인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삶의 문법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 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인간만이 아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자연·생태계에 대한 생각 및 관계 설정 역시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말 한마디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빠르다. 자기중심적으로 개발에 전념해온 인간들에게, 자연은 겸손함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과의 화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은 21세기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와 관련해, '근대성'이라는 것이 이미 다 저문 해인가, 여전히 완성해나가야 할 그 무엇인가 하는 점도 주목을 끈다.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 혹은 탈구축 등의 조어에 이미 우리는 익숙해졌다. 근대성 개념에 대한 재검토 작업도 이뤄지



최근 정치학계는 근대성 비판을 바탕으로 동서양의 사유를 종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진은 한 대형서점의 정치학 코너.

고 있다. 아무려면 어떤가.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시대를 이미 상대화하고 객관화하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그동안 배제·소외돼왔던 것들에 던지는 관심과 시선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지난날 흥행했던 서구 중심주의(Eurocentrism)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다른 측면이라 해도 되겠다. 비서구적 사유에 대한 관심의 증대라고나 할까.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동아시아의 유교, 잠재적인 위협자로서의 이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정도니까, 아직 한참 멀었다. 이제 겨우 시작인 셈이다.

조금은 다른 맥락에서, 정보화 추세와 인터넷의 유행은 또다른 '문명'의 가능성을 예언(혹은 암시)해주고 있다. 저주인가 축복인가. 사이버 공간, 사이버 정치, 사이버 인간 등,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가상인가. 무엇이 인간적인 것이고, 또 현실인지,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경계선을 그을 것인가.

동·서양 정치철학의 새로운 만남

그러면, 우리 정치철학계의 분위기는 어떤가. 나 자신이 구성원의 한사람인 만큼, 심히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감히 용기를 내서 말해보기로 한다.

얼마 전까지, 서구의 지적 전통과 정치적 사유에 대한 일차적인 학습과 탐구가 우리 정치철학 연구의 주류를 접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동양·한국의 정치적 사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따로 놀았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부재했다.

중국·일본과 마찬가지로 서구사상에 대한 이해가 일정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동양·한국의 정치철학을 떠올리게 됐고, 뒤늦게 '말 걸기'가 시작됐다. 한국정치사상연구회의 결성(95년 12월)과 한국정치사상학회로의

발전적 이행(97년 12월)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의사소통의 즐거움과 더불어 동양과 서양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정치철학의 가능성'을 상징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근대성' '여말선초의 정치사상' '자유주의 탄생과 동양에서의 수용과정'이라는 주제로 세차례 연례학술대회를 열었으며, 오는 6월에 다시 '동양과 서양의 권력관'을 다루기로 했다. 정치학의 핵심 개념인 '권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구성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근본 개념을 반추한다는 의미에서, 래디컬한 시도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최근에는 전공 영역을 넘어서, 학회 차원에서 《상서》(尙書)를 같이 읽고 있다. 독회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체험과 고대 중국의 문명이 같은 차원에서 논의되며, 또 전혀 다른 시각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대화'와 '낮설게 바라보기'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다.

그 외에 다양한 독회 모임을 통해서 동·서양의 정치철학 고전을 읽어나가거나(논평회, 서평모임), 지난날 동서양 문명의 지적인 기원과 그들이 만날 때 일어나는 갈등과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전파모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것은 그동안 잊혀졌던 전통적인 정치적 사유에 대한 추체험과 동시에 새로운 정치철학의 모색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전통적 사유와 서구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면서 보편성을 지닌, 독자적인 정치철학을 조심스레 전망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인간의 사고가 엄밀성과 더불어 총체성을 추구하게 될 때, 정치철학은 비로소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